



**SUKHI KANG**  
강석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2014  
가을시즌

SNU  
NEW  
MUSIC  
SERIES

7, 18  
OCT.  
2014

STUDIO.2021

**ENSEMBLE AVENTURE** 앙상블 아방튀르



**ENSEMBLE AVENTURE AT SNU**  
CONCERT I & II  
10. 7. TUE. PM 5:00 / 7:00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UKHI KANG AT 80**  
LECTURE & CONCERT  
10. 18. SAT. PM 3:00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주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주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주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주최: 서울대학교 예술관

## Ensemble Aventure at SNU

### Concert I

김수혜 | 김승연 | 송향숙 | 심은영 | 이승은 | 임성완

### Concert II

김규동 | Breitenfeld | Flammer | A. Huber | Dinescu | Schölnhorn

2014년 10월 7일 (화) 오후 5시 / 7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Sukhi Kang at 80

2014년 10월 18일 (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STUDIO2021

## Music Director's Notes

이 신 우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 STUDIO2021 음악감독)

제가 유학 중이었던 1990년대 당시 런던은 흥미롭고 질 좋은, 우수한 공연들이 가득했던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영국의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연주단체들이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생일에 즈음하여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거나 연주함으로써 그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매년 o o o at 60, o o o at 70, 80 등의 공연 제목을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주로 작곡가의 제자들이 음악회를 기획하여 스승의 생일을 기리는 한국 풍토와는 달리, 주요 연주 단체들에서 생일을 맞은 작곡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를 담아 1년 내내 그의 음악을 재조명하는 그 사회의 높은 문화적, 정신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작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활동을 이어가시는 한국 현대음악의 거목(巨木) 강석희 선생님께서 올해로 팔십세를 맞이하셨습니다. 그간 한국의 문화 풍토 또한 많이 바뀌어 서울국제음악제와 서울시향의 아르스노바, 운지회, 아츠페스티발디멘전,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대미술관 MoA의 특별기획음악회 등, 올해 많은 연주자들과 단체들에서 강석희 선생님의 팔십세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 2021에서는 선생님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악학자 서정은 박사가 '시대를 앞서간 창작가 강석희'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일본의 비올라 연주자 요시코 하나가 내한하여 선생님의 팔십세를 기념하여 스튜디오 2021에서 위촉한 비올라 솔로를 위한 〈샤콘느〉를 초연합니다. 그리고 김정훈 작곡가가 강석희 선생님께 헌정하는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신작, 〈ferner rAND II〉가 세계초연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를 비롯한 초청 연주자들과 서울대 기악과 학생들이 강석희 선생님의 〈평창의 사계〉, 〈환타지〉, 〈보르텍스〉 등의

최근 작품들을 연주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공연 예술 전반으로 더욱 확대되어 예술가들의 작품과 창작 행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 풍토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독일의 현대음악앙상블 아방뮈르가 내한하여 송향숙, 김수혜, 김승연, 심은영, 이승은, 임성완 등, 한국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과 김규동, 롤란트 브라이텐펠트 등 서울대 작곡과 교수진의 작품 및 니콜라우스 아 후버, 요하네스 쉬호른을 비롯한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실험적 무대가 될 이번 공연은 연주자와 작곡가가 함께 어우러져 격의 없이 작품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진정한 음악가들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튜디오2021에서 마련한 이번 두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음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STUDIO2021 Column

# 시대를 앞서간 창작가, 강석희의 팔십세를 기념하여

서정은 (음악학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항상 작곡에 임할 때 나의 느낌은 음악과는 관계없는 어떤 동떨어진 적막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서서히 어떤 테마를 놓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상상한 적도 없는 어떤 공간 속에 빠져든다. 형상화할 수 없는 어떤 형체와의 대결이랄까.

나는 우선 하나의 공간구조를 설정해 나간다. 이것은 기초적인 어떤 음악적 선입관과 관계가 없다. 내가 구축하려는 형체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때부터 소리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작품에서 사용될 모든 음악적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소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부터 사용될 악기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악기의 기능을 연구한다. 그 후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작곡을 해나간다.”

- 강석희 저 『나는 음악을 설계하는 작곡가』 중에서

작곡가 자신이 묘사하는 창작의 과정은 추상적이면서 공간적이다. 무정형의 소리예술인 음악을 그 본질적 성격대로 접근하는 한편, 시간예술인 음악을 공간적 관점으로 그려간다. “음악을 구축하는 가장 작은 요소인 ‘음’은 그 이상이나 이하의 의미를 갖지 않는 순수한 소리 그 자체”라는 자신의 말과 같이 철저한 형식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음의 추상성에 공간의 구체성을 입히는 것으로 작곡의 과정을 시작한다.

1934년 출생으로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척박했던 문화적·음악적 환경에서 성장한 강석희의 음악적 사고는 마치 유럽의 오랜 클래식전통을 지내온 후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던 20세기 중후반의 서구작곡가만큼 진보적이고 다면적이다. 동시대의 한국작곡가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의 이러한 음악관 또는 창작관은 그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 삶의 주요 흔적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특별한 재능을 보여 음악의 길을 걷게 되는 어린 작곡가들과 달리, 강석희가 기억하는 그의 어린 시절은 음악보다는 문학과 그림에 더 흥미를 느꼈던 소년이었다. 학교나 교회에서의 음악경험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언뜻언뜻 느끼긴 했으나 별다른 관심 없이 음악을 즐겨 듣지도 공부하지도 않았던 그는 우연한 계기로 작곡과 입시에 응시하게 되고, 1955년 서울대 작곡과에 입학하게 된다. 동기생이었던 백병동, 송해섭, 이강숙 등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식견에 적잖이 놀란 그는 1년간 낙원동의 ‘르네상스’라는 음악다방에서 집중적으로 클래식음악을 들으면서 뒤늦은 공부를 해나간다.

그러나 강석희의 음악적 상상력과 창작력, 그리고 그가 음악에서 느끼는 흥미

는 이미 다른 토양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시절이던 1950년대 중후반은 국내 음악정보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어서 일본의 예술관련 잡지를 통해 빈약한 정보를 얻는 게 전부였는데, 당시 일본의 젊은 작곡가 마유즈미 도시로의 〈니르바나〉라는 현대적 작품을 듣게 된 강석희는 그 일본 작곡가가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 무렵 한국의 기성 작곡가들은 대부분 조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어법을 사용하며 후기낭만의 정도의 음향을 구사하고 있었고, 극소수의 작곡가들이 12음기법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미 새로운 음향과 어법을 탐색하는데 관심이 컸던 강석희는 1966년 한국 최초의 전자음악인 〈원색의 향연〉(The Feast of Id)을 발표하면서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의 작품목록의 첫 곡으로 전자음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그것도 1960년대 한국에서—그의 이후 행보를 어느 정도 가늠케 하는 한 가지 실마리라 하겠다.

비록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장비를 통해서였지만, 첫 전자음악 작업을 시도한 강석희는 이를 통해 음악의 다양한 파라미터—음색, 리듬, 음역, 지속시간, 다이내믹 등—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사고를 익히게 되었고, 이는 이후 그가 작품의 논리성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의 이점인 다양한 음고 구사의 가능성을 통해 평균율이 아닌 다른 음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는 음악의 중점이 선율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생각, 따라서 철저한 구조를 갖춰야 음악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곡가 강석희의 일생에 걸친 음악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은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는 경우는 이미 그의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가치관을 잘 나타내준다.

그의 음악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한 시점은 1968년 동베를린 사건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수감 중이었던 윤이상을 만났던 때였다. 세계 유수음악가들의 구명운동 속에 병보석으로 입원 중이던 윤이상을 만난 강석희는 약 1년간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가 레슨을 받는 한편, 그가 유럽 체류 중 고민했던 문제들, 즉 한국과 서양 사이에서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 마침내 독자적 세계를 구현하기까지의 고민 과정을 생생히 듣게 된다. 이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 강석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이상은 당시 유럽현대음악계의 동향과 창작의 정신 등에 대해 의미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에서의

현대음악계 개척을 강석희에게 권유하게 된다. 이에 큰 영향을 받은 그는 1969년 〈서울 현대음악 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되고, 이는 몇 년 후 〈범음악제〉(Pan Music Festival)로 명칭이 바뀌어 1992년까지 강석희의 기획 및 예술감독 아래 한국의 현대음악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음악제로 자리하게 된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초청작곡가로서 〈원음〉, 〈예불〉, 〈생성 69〉 등을 발표한 직후 독일로 떠난 그는 1975년까지 하노버 음악대학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윤이상, 보리스 블라허에게 작곡을,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프리츠 빙켈에게 전자음악을 공부하던 유학기간동안 이후 그의 음악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다. 관현악곡 〈카테나〉(Catena, 1975)는 독일유학시절의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는 마지막 작품이면서, 이후 그의 창작세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모태와 같은 작품이 된다.

귀국 후 1976년 10월 베를린 메타음악제(Meta Music Festival)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작품을 위촉받게 되면서—〈예불〉, 〈농〉 이후로—다시 한국적 음악을 소재로 택하게 되는데, 이때 작곡된 인성과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2명의 타악기주자를 위한 〈부루〉(1976)는 그의 초기대표작 중 하나로 기록된다.

1980-81년 베를린 DAAD의 예술가 프로그램 초청으로 다시 독일에 체류하게 된 강석희는 베를린 공대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작업하면서 전자음악에 다시 몰두하여 〈모자이크〉(Mosaico, 1981), 〈향흔〉(Klangspuren, 1981), 〈향변〉(Mutatio Perpetua, 1982), 〈아니리 2〉(1983), 〈인벤치오〉(Inventio, 1984), 오토바이 소리만 사용한 구체음악 〈오디세이〉(Odyssee, 1984), 라디오음악극 〈펜테질레아〉(Penthesilea, 1985) 등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 후 1982-99년까지 서울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작곡가로 길러내는 한편 끊임없이 작품을 창작했고, 동시에 〈범음악제〉 외에도 베를린의 실험음악제 〈인벤치오넨〉(Inventionen)의 공동주관(1982-85년), 〈서울-베를린 페스티벌〉 주관(1994-97년),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부회장 역임(1984-90년) 등의 활동으로 한국 창작음악계의 활성화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도 작곡가와 음악제 주관자로서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아츠페스티벌 디멘션〉(Arts Festival Dimension)을 이끌면서 여전히 창작을 병행해오고 있다.

## 음악세계

순수기악음악, 칸타타, 오페라, 전통국악의 소재를 사용한 음악, 전자음악, 컴퓨터음악, 음악극, 필름과 전자음향을 위한 곡 등 대단히 다양한 장르와 성격의 작품목록을 형성하는 강석희의 음악세계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작품들을 관통하여 그의 음악세계 전반을 묶어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의 특징은 앞서 짧게 언급한바, 음악을 주관적 감성이나 감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리’와 ‘지성’을 통해 접근하려는 태도다. 이는 그가 쓴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언된 것으로, 그는 작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음을 구축하는 것”이며 “냉철한 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가 요구되는 세계”로서, 작곡가는 “모든 소리들을 철저히 지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언뜻 보면 작곡가라기보다 과학자나 공학자의 말과 같이 들리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그만의 독특한 음악관은 아니다.

서양음악사를 돌아볼 때, 작곡가들이 이처럼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작품을 통해 뛰어난 음악적 논리와 구축의미를 드러내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글로 써내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대인 20세기의 작곡가 중에는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음악에 대한 사고와 강석희의 관점이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시대를 지나 신고전주의로의 전환의 이유를 ‘반(反)표현미학’으로 설명한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이 추구하던 주요 미개념인 표현미학 또는 감정미학을 거부하고, ‘절대음악’적인 고전주의의 미(美)이상을 목표로 삼았던 그의 말은 위에 인용한 강석희의 글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보인다.

“작곡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술이 더욱 통제되고 제한될수록 예술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예술작품의 완성을 위해서는 작곡가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다스러져야 한다. 혼련되어야 한다. 푸가는 그 좋은 예이다. 완전한 형태의 푸가를 위해서는 작곡가가 규칙에 예속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음악은 시간 속에 나타나는 질서(order)다.” “음악은 감정의 표현도, 감정의 상징도 아니다.” “음악은 음재료의 결합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과연 <봄의 제전>의 작곡가가 쓴 글이 맞는가 당혹스러울 만큼의 냉철함을 보여주는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으로부터 음악 외의 다른 것—기쁨, 슬픔, 고

통 등의 감정유발, 자연에의 환희, 나아가 무미건조한 인생을 잊기 위한 자극제 등을 찾으려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음악은 그것이 청취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무관한, 고유의 자율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 더 앞선 시대의 한 비평가의 글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음악의 자율성(autonomy of music)을 주창한 한슬릭(E. Hanslick, 1825-1904)의 유명한 말, “음악의 내용은 울리며 움직이는 형식이다”는 당시에나 후대이나 음악을 만드는 자와 음악을 듣는 자들의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는데, 약 1세기 후의 한국작곡가인 강석희는 한슬릭의 음악관과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가 정열적 효과를 내는 원인은 작곡가의 과도한 고통이 아니라 증음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작곡가의 영혼의 떨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팀파니의 트레몰로에 의한 것이다. 작곡가의 그리움으로부터가 아니라 반음계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라는 한슬릭의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음악을 느끼지 못하고 분석의 메스만 들이대는 냉혈한의 글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모호하고 설명안되는 감정의 산물 같았던 음악과 그 효과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물론 후자에 해당하는 강석희는 한슬릭과 같은 비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작곡가이기에, 이러한 그의 음악관은 그의 주요작품들을 관통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독일유학시절의 마지막 작품 <카테나>(1975)는 위와 같은 사고를 음악화하기 시작한 첫 곡으로, 이후 그가 추구하는 음악세계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에 걸쳐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법을 찾은 197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일관된 지향점을 보인다.

관현악곡 <카테나>는 ‘사슬’을 뜻하는 제목답게 60개의 다양한 단편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를 이룬다. 다양한 악기편성, 길이, 음역, 다이내믹, 템포를 특징으로 하는 단편들이 하나의 구조물 속에 균형을 갖고 전개된다. <모자이크>, <향변>(Mutatio Perpetua)도 이 작품의 연속선상에서 작곡되었으며, 나아가 <인벤치오>, <환영>(Mosaicum Visio), <연쇄반응>(Chain Reaction), <보르텍스>(Vortex)에도 영향을 준만큼 <카테나>는 강석희의 전체 작품목록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곡이라 하겠다. 물론 <예블>, <농>, <부루> 등 1960-70년대 작품들도 초기 대표작들로서 그의 음악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1980년 이후의 주요경향은 <카테나>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카테나> 이후 대부분의 작품들은 위에서 언급한바 ‘연속적 전개과정’을 통

한 논리성을 추구하여,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음악적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의 음악관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기 작품들에는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금속성 음향이다. 이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배음열의 고차배음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는데, 중간음역 이상의 고음역 그리고 금속 타악기들(대부분의 이디오폰)의 배합을 통해 그가 선호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소리”를 산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이러한 음향을 좋아하게 된 것에는 어려서부터 큰 관심을 가졌던 우주에 대한 생각과도 연관된다고 작곡가 스스로 말한다. 별들의 소리, 우주의 소리라고 나름대로 상상했던 것이 그러한 금속성 음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1980년 작품인 〈청동시대〉라고 할 수 있다. 쾰른 WDR 방송국의 위촉으로 작곡된 이 곡은 한 명의 타악기주자(징, 탐탐, 공...)와 전자음향을 위한 편성으로, 강석희는 〈청동시대〉작곡에 앞서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해 중국 송-원-명-청 시대의 온갖 청동기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깊이 매료되었다고 한다. 깊고 낮은 소리부터 높고 현란한 소리까지의 환상적 경험은 이후 빛나는 금속성 음향에 대한 추구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작곡가들이 특별한 음향이나 음색에 집착했던 예는 사실 꽤 많이 있다. 신고전주의 시기의 스트라빈스키는 특히 목관악기에 대한 애착을 보였는데, 목관악기를 위한 「8중주」(Octet, 1922-23)에 대한 설명에서 자신의 이러한 선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악기의 유연함이 연주자의 개인적 감수성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반면, 목관의 음색은 형식의 엄정함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목관악기들 사이의 양감적 차이는 음악적 진취미를 더 명확히 해준다.” 역시 명확성과 진취적 형식미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바탕한 악기취향임을 보게 된다.

에드가 바레즈 역시 관악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함께 현악기는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자신의 고유한 음악적 사고에 기반한 특정악기군에 대한 선호의 경향을 강석희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작곡가에게나 자신이 선호하는 악기 또는 음색이 있을 수 있으나, 강석희에게 있어 특정음향에 대한 선호는 선호를 넘어 ‘추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위에서 말한 화려한 금속성 음향을 그는 비단 타악기뿐 아니라 현이나 관, 건반악기를 통해서도 즐겨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강석희 음악의 한 특징은 ‘한국적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다. 앞서 언급했듯 그의 초기작품들 가운데는 한국전통의 음악적 요소(〈농〉, 〈예불〉, 〈부루〉 등) 또는 설화적 요소(만파식적 이야기에서 발상을 얻은 〈만파〉 등)를 다룬 작품들이 적지 않고, 이 곡들이 그의 주요작품들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강석희는 이러한 한국전통적 요소를 다룸에 있어서도 특정 역사나 문화의 맥락으로부터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중립적인 작곡재료로서 사용한다. 국악기의 농현을 분석하여 음악적 재료로 사용한 〈농〉에서도, 만파식적 전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만파〉에서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음악의 논리적 구성과 새로움이었다. 농악의 리듬요소를 도입한 피아노와 전자음악을 위한 〈인벤치오〉(1984-85), 베를린 필의 12첼리스트를 위한 곡으로 위촉시 한국적 성격의 요구에 따라 역시 농악의 빠른 리듬을 사용한 〈놀이〉(1990)에서도, 그는 자신이 “한국적 음악을 쓰겠다는 의식보다는 추상적, 절대적 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이로써 볼 때 그는 한국 또는 동양문화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향성을 거의 갖지 않으며, 그보다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잃어버린 원형의 회귀와 이를 바탕으로 영원한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비단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작품 중 중국이나 그리스 등으로부터 소재를 가져온 경우에 대해서도, 자신의 음악세계에 있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하는 그는 분명히 인류보편적 사고를 추구하는 작곡가며,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선 글로벌 예술가였다.

강석희가 작곡가로서 창작해온 작품세계에 있어서나, 국내외 굵직한 현대음악제의 기획가이자 예술감독으로서 기여한 한국 현대음악 현장의 질적·양적 상승 및 국제화에 있어서, 한국의 현대음악사를 총괄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를 뽑게 된다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세계나 작품양식에 대한 호오(好惡)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이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현대 한국음악사·국내 ‘현대음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한국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의 하나라는 데에 이견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이은 미군정, 6.25 전쟁, 오랜 군부독재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이 극단적으로 혼란스럽고 초라했던 20세기 중후반에 이미, 시대와 사회의 한계를 종횡으로 뛰어넘었던 그의 족적을 돌아보면 놀라울 지경이다. 한국의 음악인,

그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곡가’라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강석희는 음악계뿐 아니라 예술계를 총망라해 대단한 영향력을 지녔던, 실로 독보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그가 작곡가로 성장하고 자리 잡아 갈 당시 한국의 음악적 상황—창가 중심의 일제강점기와 서양의 찬송가 등 단순한 조성음악을 통해 서양음악을 접했던 시기를 막 지나,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선율 중심의 사고에 바탕해 작업을 하던, 또한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음악도 대부분 낭만주의정도까지였고 현대음악 정보는 극히 드물었던 시대—을 고려할 때 그의 음악적 사고는 서양현대음악사의 한 세대 정도를 뛰어넘은 듯해 보인다. 즉 조성체계를 유지하던 후기낭만주의에서 20세기 중반(예컨대 다름슈타트 악파)으로 바로 뛰어넘은 것 같은 사고의 도약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선율적 특징과 심리·감정의 표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20세기 초 무조성 시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1950년 전후의 음악적 사고와 어법으로 넘어간 듯하다. (물론 작품의 음향 자체가 이 시기의 유럽음악과 유사하지는 않다. 음악에 접근하는 ‘사고’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말하는 “음악을 설계하는” 작곡가라는 표현은 스스로에 대한 매우 정확한 수식이라 하겠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럽에서의 한국의 인지도가 매우 낮던 1970-80년대에 서양음악의 전통 및 현대의 중심지인 독일을 중심으로 작곡가로서 인정받으며 국제음악계와 유명연주자들의 끊임없는 위촉 속에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는 것, 국제음악제를 공동주관하고 주요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강석희의 음악가로서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21세기, 이른바 글로벌 시대라는 현재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전성기의 범음악제, 메타 음악제(Meta Musik Festival), 국제현대음악제(ISCM)를 오랜 기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끌었던 탁월한 조직가로서의 능력과 동시에, 국내의 어떤 작곡가들보다도 창조적인 작품들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작곡가와 기획가라는 양 방향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오랜 시간 대학에 몸담았던 교육자로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음악창작에 접근하는 태도와 작곡가로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기술을 제자들에게 깊이 심어주었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패러독스의 작곡가다. 대단히 진보적이고 실험

적이어 보이거나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악기나 인성의 주법은 (전자음악을 제외하고는) 대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다. 즉 작풍구성방식이나 음악관은 동시대 가운데 가장 앞선 작곡가에 속했지만, 그러한 구조와 음향을 만드는데 사용된 개개의 재료는 전통적인 것들이었다. 그런가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차갑게 빛나는 이성과 특정문화권에 귀속되지 않는 보편성을 추구한 작품들에 조금도 덜하지 않게 그의 음악세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작품들은—그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매우 한국적 색채가 강하거나 감성을 풍부히 자극하는 곡들이다. 이렇듯 악기들의 전통적 주법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며, 이성적인 창작태도를 주장하면서도 감성적인 대표작품들을 남긴 그의 이러한 역설적인 면모는 그의 창작세계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평형추였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STUDIO2021 봄시즌의 초빙작곡가였던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와 음악적 이상(理想) 및 그에 따른 음악적 결과물은 서로 전혀 다르지만—그 이상 다를 수 없을 만큼 다르지만—창작가로서 음악에 접근하는 치열한 태도, 순수한 예술의 세계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해가는 자세, 독창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세계를 곳곳이 관철해나가는 단단한 정신, ‘창조’라는 말마저도 경제논리와 상업성 안에서 오용되는 21세기의 천박함 가운데 진정으로 창조적이며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은 구바이둘리나와 강석희, 두 노장에게 있어 적잖이 통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아니 어쩌면, 예술의 길을 평생동안 치열할 만큼 진정으로 추구하여 마침내 일가(一家)를 이룬 모든 예술의 거장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잇는 우리가 보다 앞서 올곧은 발자취를 보여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새로움을 향한 추구 또는 예술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척박한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태어나 살아왔으나,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창작세계를 부단히 탐험해온 작곡가 강석희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며, 여전히 청년과 같은 현역 작곡가다.

2014 Fall Season

# Ensemble Aventure at SNU

## Concert I

송향숙 | 김승연 | 김수혜 | 이승은 | 심은영 | 임성완

2014년 10월 7일 (화)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송향숙 Hyang-sook Song  
**L'eau brisée** pour Piano et Percussion (2014)

김승연 Seungyon Kim  
**Currus Solis In Via Regina**  
for Flute, Oboe, Clarinet in B $\flat$ , Bassoon and Pian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위촉작

김수혜 Sue-Hye Kim  
**La femme qui plante des arbres dans un désert**  
pour Violoncelle Sol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위촉작

이승은 Seung-Eun Lee  
**Hap** für Flöte, Klarinette, Violine, Cell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위촉작

심은영 Eunyoung Shim  
**Fünf Stücke**  
für Flöte, Klarinette in B, Fagott, Violine, Violoncello,  
Schlagzeug(Marimba, Becken, Temple Blocks, Maracas),  
Klavier (2012)

임성완 Kenneth Lim  
**Sleep, Baby, Sleep** for Piano Tri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학생 공모작

2014 Fall Season

# Ensemble Aventure at SNU

## Concert II

김규동 | Breitenfeld | Motz | A. Huber | Schöllhorn | Dinescu | Flammer

2014년 10월 7일 (화) 오후 7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김규동** Gyoo-Dong Kim  
**Drei Klavierstücke** (2013)

**Roland Breitenfeld**  
**Ereignisse V**  
für Flöte (auch Picc), Oboe, Klarinette in B, Fagott,  
Schlaginstrumente, Klavier, Violine, Violoncello und  
Live-Elektronik (2013)

**Wolfgang Motz**  
**tratti**  
für Flöte, Klarinette, Violine, Violoncello, Vibraphon und  
Klavier (2008)

**Nicolaus A. Huber**  
**La Force du Vertige**  
für Flöte, Klarinette, Violine, Violoncello und Klavier (1985)

**Johannes Schöllhorn**  
**conductus** über das Trio BWV 584 von J.S. Bach  
für Klarinette in B, Violine, Violoncello und Klavier (2010)

**Violeta Dinescu**  
**Trio** für Oboe, Klarinette und Fagott (1986)

**Ernst Helmuth Flammer**  
**Interludium** für Oboe, Klarinette und Fagott (2008/09)

**Ensemble Aventure**  
Martina Roth Fl.  
Alexander Ott Ob.  
Walter Ifrim Cl.  
Wolfgang Rüdiger Bsn.  
Friedemann Amadeus Treiber Vn.  
Beverley Ellis Vc.  
Akiko Okabe Pf.  
Nicholas Reed Perc.

# Sukhi Kang at 80

2014년 10월 18일 (토)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Audiovisual

강석희 <Stone Lion>

## Dedicated film to Sukhi Kang

현대음악과 함께한 80년, 강석희

## Lecture

서정은 <시대를 앞서간 창작가, 강석희의 80세를 기념하여>

## Concert

강석희 Sukhi Kang

**Vortex** for 4 Percussionists and Piano (2004)

— Intermission —

김정훈 Junghoon Kim

**ferner rAND II** for Viola and Pian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위촉작

강석희 Sukhi Kang

**Violin Fantasies** pour Violon et Piano (2013)

강석희 Sukhi Kang

**Chaconne** for Viola Solo (2014) <World Premier>

\* STUDIO2021 위촉작

강석희 Sukhi Kang

**Four Seasons** for Solo Violin and 14 Strings (2006)

이경선 Kyungsun Lee Solo Vn.

Yoshiko Hannya Va.

성경주 Kyong-Joo Sung Vn.

최승리 Sung Lee Choi Pf.

이영우 Young-Woo Lee Pf.

신이은 Ei-eun Shin Pf.

강수진 Soo Jin Kang Perc.

정회정 Hoejeong Jeong Perc.

임예지 Yeji Lim Perc.

양지은 Ji Eun Yang Perc.

정한결 Hankyul Chung Cond.

백승현 Seung-hyun Baek Cond.

SNU Virtuosi

## Ensemble Aventure at SNU

### <Concert I>

#### 송향숙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L'eau brisée> (2014)

Drum set 를 중심으로 꾸린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다.

2006년 작품, 타악기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L'eau fragile>에 이은 타악기를 수반한 듀오 작품이다. 지난 몇 년간 즉흥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흥 연주에서 음악이 연주자의 기억과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들로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연주자 간의 상호적 작용(interactivity)으로 진행되는 것 등을 듀오의 필체로 표현하고자 했다. brisée는 깨져버린 즉, 산산 조각난 상태를 가리킨다. <L'eau brisée>는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는 무언가의 뒷 이야기, 혹은 brisée 되어버린 심리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 깨버리겠다는 어떤 의지 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음악 안에서는 작은 파편들을 증식, 확산 (proliferation) 시키는 방법으로 phrase를 만들었으며 동시에 phrase의 즉흥적인 단절, 변형, 반복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였다. (송향숙)

#### 김승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를 위한

<Currus Solis In Via Regina> (2014) \*STUDIO2021 위촉작

이것은 상승(ascensio)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곡은 소리의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벼움과 무거움, 소리-진동의 에너지, 실체와 반영이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아래를 향한 무게(gravitas)와 하늘의 문을 향해 들어올리는 손 사이의 긴장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두운 밤'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승연)

#### 김수혜

첼로를 위한 <La femme qui plante des arbres dans un désert>

<사막에 나무심는 여인> (2014) \*STUDIO2021 위촉작

중국의 광활한 사막동네로 시집을 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하였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 울어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품었던 그녀의 작은 소망; 그 사막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고자 시작된, 여인의 순수하면서도 황당하고 당당한 도전!

그녀는 그렇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사막에 작은 나무를 심음으로 그녀의 작은 몸부림을 시작하였다. 말로 할 수 없는 실패와 역경 속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사람을 그리워하는 몸부림과, 결국에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게 한,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같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을, 소망의 눈을 품고 바라보고 싶었다.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 각 부분별 음향 및 요소들의 음악적 모티브들은 이야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중심음적으로 진행, 발전된다. (김수혜)

#### 이승은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합(合)> (2014)

\*STUDIO2021 위촉작

이 곡은 무엇인가에 비친 모습이나 형상을 가리키는 '상(像)'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인 실내악 편성을 위한 '상(像)'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

'합(合)'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수나 식을 더하는 것, 즉 덧셈의 결과를 말한다. 렌즈나 거울에 입사하는 수많은 빛들은 한 점에서 모이고 출발하는 상점의 집합을 이룬다. 이것은 물체의 위치, 렌즈나 거울의 배합 또는 수차 때문에 빛이 모이지 않을 경우 - 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 뿌연게 흐려지거나 일그러지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합'은 곡을 구성하고 진행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나는 작품을 써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형식이나 논리적 전개에 필요한 임의의 요소들을 가지고 다양한 변용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매개변수의 토대위에 음악적 소재들간의 관계, 각 motive들의 역할관계, 더 나아가 한 부분과 작품전체의 관련성을 획득하고자 한 4중주(Fl. Cl. Vn. Vc.)편성의 작품이다. (이승은)

#### 심은영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 피아노를 위한

<Fünf Stücke> (2012)

이 곡은 매우 특징적인 다섯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곡은 주제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의 조합으로 음색적 대비를 꾀하고 있다. 1곡은 계류음이 사용된 유니즌으로 되어 있고 2곡은 2중창의 가곡을 연상케 한다. 3곡은 극단적인 음역과 악기의 소음을 이용했으며 4곡은 비로소 모든 악기가 등장하는데 각 악기는 계산된 수열에 의해 휴지가 이루어진다. 5곡은 선율악기도 마치 인성의 격음과 같은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하고자 했다. (심은영)

### 임성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Sleep, Baby, Sleep> (2014)

\* STUDIO2021 학생공모작

절대상수로부터 도출된 절대상수, 이들이 구성하는 내적 완결의 세계는 영원하지만 불완전하다. 반면 의미소의 부재, 미처 채색되지 못한 구성체들이 지닌 포용력은 실로 가공하다. 절대상수가 아닌 절대변수들이 이루는 세계. 하늘을 그리면 하늘밖에 될 수 없지만 그리다 말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법. 결국 작가는 유예와 유보, 전가를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 이것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필사적으로 투쟁해 온 것인가. (임성완)

## Ensemble Aventure at SNU

### <Concert II>

#### 김규동

<Drei Klavierstücke>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 (2013)

고정된 모티브의 반복과 대비를 통해 극명한 단순함과 명료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세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곡 : 화성적 기능이 배제된 라멘트 베이스(Lament Bass)의 교차진행과 빠른 연타에 의한 오연음부 그룹이 대조적으로 진행된다.

제 2곡 : 시작부분에 제시되는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은 온음음계의 짧은 음향 제스처를 동반한 삼연음부의 중심음으로 각각 제시되며, 두 번째 그룹은 화음의 상성부 또는 저음에서 나타난다.

제 3곡 : 저음부의 D음 및 페달링에 의해 형성되는 음향과 화성의 연타 또는 변형된 형태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규동)

#### Roland Breitenfeld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 전자음을 위한 <Ereignisse V> (2013)

나의 연작 <사건들>에는 건반악기가 중심에 놓여있다. 연작의 첫 곡에서는 대편성 오케스트라 반주에 첼발로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의 독주그룹과 함께

편성되었으며 라이브 일렉트로닉이 함께 한다. 두 번째 곡은 피아노와 스피넷, 타악기, 전자음악(슈프레히슈티메, 도자기 항아리·피아노·나무상자에서 나는 소리의 전자적 가공)을 위한 작품이며, 세 번째 곡은 다시 대규모 앙상블 편성으로 아직 작업 중에 있다. 네 번째 곡은 첼발로와 전자음악을 위한 편성으로, 2011년 첼발리스트 정수경을 위해 작곡되었다.

전체 여덟 곡으로 계획된 이 연작은 일종의 '위성 작품들'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건들 I>로부터 여러 개의 작품들이 독립되어 나오는데, 플루트와 라이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Engramm reagiert...>, 또는 오보에, 클라리넷, 라이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Echos eines Engramms>, 또는 플루트 독주를 위한 <Faktor Nr. 1> 등이다.

건반악기가 중심에 놓이는 특징은 <사건들 V>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어, 피아노가 어느 정도 독주적인 무게를 지닌다. 전자음악은 라이브 일렉트로닉과 미리 녹음된 음향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앙상블 아방뎀르를 위해 작곡되었다. (Roland Breitenfeld)

#### Wolfgang Motz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비브라폰, 피아노를 위한 <tratti> (2008)

이 곡은 1975년 작인 <Puzzle>의 악기편성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본래 2008년 5월 내가 강의하던 시칠리아 카타니아 음악원의 분석수업 종강연주회에서 초연을 위해 작곡되었다.

이태리어 'tratti'는 '부분(조각)' 또는 '특징'을 의미한다. 각기 다양한 분위기와 텍스처를 띠고 있는 작품의 각 부분들은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성격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Wolfgang Motz)

#### Nicolaus A. Huber

5중주를 위한 <La Force du Vertige> (1986)

현기증이란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들과의 독특한 대립이며 충돌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현기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심연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심연으로 몸을 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앙드레 클뤼스만은 이렇게 말한다: "현기증은 조금 후 도달할 또 다른 나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가능성들로부터 다른 가능성들로, 즉 미지의 것들로 뛰어드는 것은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내 감정의 실험적 상태였다. 이러한 양상은 작품 안에서 다양

한 텍스처, 다이내믹, 잦은 미분음정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특히 전반부의 한 텍스처의 ‘뒤쫓는 듯한’ 성격—작곡을 끝내고서야 내가 심리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었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현기증의 전을 한가운데서, 그리고 글릭스만의 동명저서 “현기증의 힘”과는 반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급진적 원칙을 향한 돌변이다: 현기증보다는 행위를! 바위를 부수는 것은 부드러운 물이다! (Nicolaus A. Huber)

### Johannes Schöllhorn

〈conductus〉 [2010]

중세음악에서 ‘콘дук투스’는 비전례(non-liturgical) 종교음악에 속하는 것으로 단성부 또는 다성부의 성악곡이었다. 라틴어 ‘conducere’(호위하다)에서 유래하는 용어답게 콘дук투스는 느린(걸는) 템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가 느린 속도로 매우 집중해서 걸어가는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나의 〈콘дук투스〉는 안토니오 필레기(Antonio Pileggi)의 프로젝트인 “십자가의 길”(via crucis)의 서곡으로 구상되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트리오 g단조를 토대로 작곡되었다. (Johannes Schöllhorn)

### Violeta Dinescu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Trio〉 [1996]

연주시간 6분가량의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이 작품은 자유로운 즉흥 연주의 인상을 주지만, 사실상 매우 엄밀하고 정확하게 작곡된 곡이다. 이는 디네스쿠의 작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특징으로, 자유로운 구상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판타지의 홍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 전통문화의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톤을 연상시키는 민속적 요소는 작품에 그대로 인용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양과 원리로서 사용되어 미분음, 멀티포닉스, 비스빌리안도 등 현대의 주법과 표현형태에 알맞게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 (Wolfgang Rüdiger)

### Ernst Helmuth Flammer

다양한 독주악기를 위한 〈Interludium〉 [2001-2005]

지난 2001-2005년 〈Interludium〉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독주악기를 위한 연작을 작곡했다. 이 짧은 독주곡들은 최근에 완성된 한 대규모작품의 부분들이 되는데, 이 대규모작품은 그 성격이 작곡과 즉흥 사이의 경계, 그리고 재즈와 현대음악의 경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연작의 모든 곡들은 독주자에게 최대한의 비르투오소를 요구하며 연주하기에 까다로운 특징을 갖는다. 각각의 독주곡들은 위에 언급했듯 즉흥연주의 의미에서, 2명 이상의 연주자들에 의해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동시에 연주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연주자들은 각자의 주제를 선택하여 푸가와 같은 폴리포니적 상황을 만든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 지시된, 다시 말해 컨트롤된 우연과 같은 결과물을 낳게 된다. (Ernst Helmuth Flammer)

(독일어 번역: 서정은)

## Sukhi Kang at 80

서정은(음악학자, 한국국원대학교 교수)

이번 STUDIO2021 가을시즌 무대에 올리는 강석희의 작품들은 올해 완성된 신작 초연을 비롯해 전곡이 2000년 이후의 최근작들로서, 2004-2014년까지 10년간의 작품들이다. 정확히 70세에서 80세에 이르기까지 작곡된 음악이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전곡에서 느끼게 한다.

비올라 독주를 위한 〈Chaconne〉 [2014] \* STUDIO2021 위촉작

STUDIO2021의 위촉으로 작곡되어 비올리스트 요시코 하나(Yoshiko Hannya)에게 헌정되었다. 변박 없이 3/8박자로 일관되어 있으며, 여섯 마디로 이루어진 샤콘느 주제에 이어서 박의 단위인 8분음표가 2분할-3분할-4분할... 8분할까지 계속 쪼개지며 다양한 리듬을 구사한다.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을 마무리하는 세 번의 종결구는 유사한 성격(리타르단도에 이은 페르마타, 고음역으로의 상행을 통한 종결감)을 띠고, 이를 통해 형식적 통일성을 갖는다.

리듬이 순차적으로 분할되어가는 첫 부분과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배합을 보이며, 첫 부분에 거의 나타나지 않던 이중음(double stops)의 잦은 등장으로 텍스처를 풍성히 한다.

네 명의 타악기 주자와 피아노를 위한 〈Vortex〉 [2004]

유체(액체 혹은 기체)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몰아치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소용돌이라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용돌이가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가정하여 이를 타악기군과 피아노를 통

해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2003년 작품인 관현악 협주곡 〈연쇄반응〉(Chain Reaction)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으로, 〈연쇄반응〉에 등장하는 5명의 타악기주자의 역할을 4명이 담당하고, 피아노 한 대가 오케스트라를 대신할 수 없어서 오케스트라 파트를 피아노와 타악기에 나누어 분배하였다. (강석희)

이 곡은 STUDIO2021의 위촉작품으로 2004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강석희교수 70세 기념음악회 “강석희와 그의 동시대 작곡가들”에서 주희성교수의 피아노, SNU Percussion Players의 타악기, 최경환교수의 지휘로 초연된바 있다.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Fantasie〉 (2013)

파리 루브르 박물관 위촉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2013년 4월 11일 다니엘 조(Daniel Cho)의 바이올린, 제시카 오스본(Jessica Osborne)의 피아노로 세계초연되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유사한 제스를 취하는 부분과 상반된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나뉜다.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전자의 경우, 마치 하나의 성부가 두 가지의 악기음색으로 나뉜 듯한 인상을 준다. 곡의 제목과 같이 자유로운 환상곡처럼 들리기도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 서두에 배태된 몇 가지 요소들이 다양한 형태와 상호관계성 속에 음악전체를 이끌어간다.

### 독주 바이올린과 14대의 현악기를 위한 〈평창의 사계〉 (2006)

독주 바이올린과 14대의 현악기를 위한 이 곡은 2006년 대관령 국제 음악제의 위촉으로 작곡되어 세종솔로이스츠에 의해 초연되었다. 각 계절별로 두 악장씩, 전체 8악장으로 구성되었다.

산 속의 사계는 풀의 빛과 냄새만으로도 명약관화하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구름과 바람, 하늘과 땅의 기운,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 녹색 생명 하나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은 놀랍다. 튀우고 벌어져 열리면 한껏 무르익어 미련 없이 떨어지고 마는 그것은 순환이고 연속인 사계의 속성이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봄은 변화무쌍한 여름을 거쳐 풍요로운 가을에 가 닿고, 최고의 팽팽한 긴장으로 겨울을 맞는다. 겨울은 이듬해 봄을 터뜨리기 위한 강한 응축이며,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어둡고 습한 자궁이다. 따라서 산 속에서 느끼는 겨울의 정취는 그 어떤 계절보다 감동이 깊다. 끊임없이 태동하는 질긴 생명의 근원, 멈추지 않는 순환의 진리, 끝이 아닌 시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배음(overtone)이 전체음악의 바탕을 이룬다. 다양한 선법들과 온음음계, 12음음계가 사용된다. 때로는 반복적 리듬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성부마다 동일한 호모리듬 또는 시차를 둔 리듬이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강석희)

### 김정훈

####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ferner rAND II〉 (2014)

작품의 제목에는 먼, 혹은 멀리 떨어진(ferner)과 테두리 혹은 가장자리(Rand)를 뜻하는 독일어 조합에 영어 AND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2014년 작곡한 피아노 솔로를 위한 동명 작품의 두번째 연작이다. 이 작품은 중요한 두개의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간추릴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아주 작은 다이내믹의 동적인 움직임을 포함하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정확한 리듬을 요구하지 않는 꾸밈음들이 촘촘히 복합적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그 구성의 대부분이 한 박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내적인 박절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절제된 비올라에 의한 선율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전체 작품 길이 상으로는 크지 않은 비율이지만, 대부분이 단순한 상행지향성이고, ‘선율’이라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앞의 부분과 선명한 음악적 대비를 이룬다. 소리나지만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내적인 소리에 대한 표현이다. (김정훈)

## Composers

### 롤란트 브라이텐펠트 Roland Breitenfeld

1952년 독일 드레스덴 출생으로 1963-68년 드레스덴 크로이츠함창단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첫 음악교육을 받았다. 1974-75년 독일 할레의 마틴 루터 대학교에서 음악학을 전공했고, 1978년 파울-하인츠 디트리히에게 작곡공부를 시작했으며 1980-82년 드레스덴에 있는 음악원에서 빌프리트 크레츠쉬마르의 지도를 받았다. 1984년부터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클라우스 후버(작곡), 에마누엘 누네스(작곡), 메시아스 마이구아슈카(전자·컴퓨터 음악)를 사사하였다.

1987-93년 Ricordi를 비롯한 다양한 출판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루이지 노노의 라이브 일렉트로닉 악보를 펴냈으며 노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작업을 함께 했다. 1991년 이돈응과 함께 전자 및 현대음악을 위한 앙상블인 profectio-initiative freiburg를 만들어 활동했고, 1992년 이후 프라이부르크 실험음악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1994년에 베를린 Kulturfond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다. 1995-96년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기보법을 위한 조교수로 일하면서 비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였다. 1998년 메시아스 마이구아슈카와 함께 KlangObjekt-Studio를 설립한 이후 컴퓨터음악의 제작과 공연을 통해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활동 중이며 전 세계의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서 전자음악디렉터로 활약하고 있다. 2006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작곡과 전자음악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볼프강 모츠 Wolfgang Motz

1952년 독일 만하임 출생으로 프라이부르크 음대에서 클라우스 후버(Klaus Huber)와 브라이언 페니호우(Brian Ferneyhough)에게 작곡을, 에디트 피히트-악센펠트(Edith Picht-Axenfeld)에게 피아노를, 페터 피르티히(Peter Förtig)에게 음악이론을 배웠으며, 베니스에서 루이지 노노에게 작곡을, 알비제 비둘린(Alvise Vidolin)에게 컴퓨터음악을 공부했다.

프라이부르크 “앙상블 recherche”의 공동창단인인 모츠는 1980년대에 여러 현대음악 앙상블을 지휘했으며 파두아, 부다페스트, 파리, 베를린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와 프라이부르크 SWR 방송국의 실험음악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주요연주로는 1989년 도나우에싱엔 음악제에서의 관현악곡 <non svanisce> 초연, 2002년 슈투트가르트 예클라 페스티벌에서의 합창, 오케스트라, 전자음악을 위한 오라토리오 <Krypsantes> 초연 등이 있다.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시와 쾰른 WDR 방송국, 베를린 예술대학으로부터 각기 주요상을 수상한 그는 1989년부터 프라이부르크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니콜라우스 A. 후버 Nicolaus A. Huber

1939년 독일 파사우 출생으로 뮌헨음대에서 프란츠 사버 레너(Franz Xaver Lehner)와 귄터 비알라스(Günter Bialas)에게, 그리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루이지 노노에게 작곡을 공부했다. 요제프 안톤 리들(Joseph Anton Riedl)의 앙상블과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독일 현대음악협회(GNM) 부회장 재임시절 ‘정치적 음악 페스티벌’(Tage für Politische Musik)을

구상하여 1974년 본에서 개최한바 있다. 같은 해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작곡과 교수로 부임하여 최근 퇴임시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작곡과를 이끌었다.

### 요하네스 쇠홀른 Johannes Schöllhorn

1962년 독일 무어나우 출생으로 프라이부르크 음대에서 클라우스 후버(Klaus Huber), 에마누엘 누네스(Emanuel Nunes), 마티아스 슈팔링어(Mathias Spahlinger)에게 작곡을, 페터 피르티히(Peter Förtig)에게 음악이론을 공부했으며 페터 외트뵈쉬(Peter Eötövös)의 지휘 클래스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는 앙상블 Modern, 앙상블 Intercontemporain, 앙상블 musikFabrik, 클랑포름 비인, 앙상블 recherche, WDR 심포니오케스트라, SWR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체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수많은 세계적인 독주자와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작업했으며 국제 콩쿠르 작곡상을 수상한바 있다. 1997년 앙상블 Intercontemporain의 ‘Comité de Lecture’에서 선발되었으며, 2009년 니더작센 주의 프레토리우스 음악상을 수상했다. 그의 실내오페라 <les petites filles modes>는 1997년 바스티유 오페라단에서 공연되는 등 파리 등지에서 자주 무대에 오르고 있다. 실내악곡, 성악곡, 관현악곡,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작곡한 그는 피에르 볼레즈의 <...explosante-fixe...>의 편곡 등 편곡작업에도 다수 참여했다.

2004년까지 프라이부르크 음대의 현대음악앙상블 디렉터로 활동하고 1995-2000년 취리히-빈터투어 음대에서 강의했으며 2001-2009년 하노버 음대 작곡과 교수 및 현대음악연구소장을 역임한 쇠홀른은 2009년부터 쾰른음대 작곡과 교수 및 현대음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루아요몽 재단의 작곡세미나, 헝가리 바르톡 페스티벌, 익투스 세미나, 파리음악원, 중국 천진음악원, 북경음악원, 홍콩, 일본 다케후 페스티벌, 서울시향에서 강의 및 마스터클래스를 담당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비올레타 디네스쿠 Violeta Dinescu

비올레타 디네스쿠는 부쿠레슈티의 치프리안 포름베슈 음악원에서 작곡, 피아노, 교육학을 공부했다. 1982년 이후 독일에 거주 중이며, 1996년부터 올덴부르크에서 응용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음악 아카이브를 설립하여 동유럽음악을 중심으로 작곡가 콜로키움 및 심포지엄 시리즈를 열고 있다. 실내악, 오케스트라, 음악극, 발레음악, 무성영화음악,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작품목록을 보유한 그녀는 다수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바 있다.

### 에른스트 헬무트 플라머 Ernst Helmut Flammer

1949년 독일 하임브론 출생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후 음악학과 미술사, 철학을 공부했다. 이어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대위법과 음악이론을 페터 피르티히에게, 한스 하인리히 에게브레히트에게 음악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루이지 노노와 한스 베르너 헨체의 예를 통해 살피는 정치적 참여음악”)를 취득한 그는 또한 클라우스 후버와 브라이언 페니호우에게 작곡을 공부했다. 1977년부터 현대음악 및 미학관련 전문저널들을 발간해 왔으며, 1980-81년 트로싱엔 음대, 1982-85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1985년부터 뉴캐슬, 드레스덴, 오데사, 파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등 여러 대학과 다름슈타트 하계강좌에서 강의한바 있다.

1985년 현대음악연주단체 “앙상블 recherche”, 1993년 국제 현대음악 피아노포럼 “antasten...”

## Profile

을 발족했으며, 비덴비덴, 드레스덴, 프라이부르크, 하노버, 파리, 로마, 슈투트가르트 등 여러 도시들로부터 주요 상들을 수상했다. 독일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작품위촉을 받아온 그의 작품들은 많은 음악제에서 초연되거나 방송되었고, 1994년 베르고(Wergo)사에서 Portrait-CD가 발매된바 있다. 2001년부터 칼스루에의 아누스 앙상블을 지휘했으며, 2003-2013년 드레스덴 음대 작곡 및 음악학 교수로 재직했다.

### 김규동 Gyoo-Dong Ki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 이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였다. 개인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통영국제음악제, 서울음악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등 국내 여러 현대음악제 및 독일, 러시아, 중국 등에서 개최된 현대음악회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2002년 제21회 대한민국 작곡상(실내악부문)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3년 ISCM 세계음악제에 작품이 입선되었다. 현재 미래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정훈 Junghoon Ki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중앙콩쿠르에 입상하였고 독일 GFF재단 장학금, DAAD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독일 Konzert Studio Neue Musik, Ensemble Neue Musik, 중국 심양과 광저우 한중 교류음악회, 대한민국 실내악제전, 팬뮤직 페스티벌, 대구 국제현대음악제, 서울창작음악제, 창악회 정기연주회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타악기 앙상블 카로스, 가야금 트리오 AURA, 현대음악 앙상블 Eclat 등 여러 연주단체의 위촉작품을 발표하였고, 순수기악작품 외에 극음악과 한국악기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관심분야를 가지고 '절제된 감성적 표현'에 주력하여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클리리넷, 현악4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Ironische Ironie〉,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Die Frage bleibt〉, 가야금 3중주를 위한 〈Unco & Sortie〉, 극음악 〈경계속의 무한직선〉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대 작곡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 추계예대, 경희대, 서울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Project 21AvaNt-garDe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 송향숙 Hyang-sook Song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후(사사: 김정길, 이신우) 프랑스 파리에서 Allain Gaussin에게서 작곡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2010년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작곡과를 졸업하고(사사: Robert Pascal, François Roux), 2010-11년 파리 IRCAM의 CURSUS 1을 이수하였다(사사: Yan Marez, Eric Daubresse, Jean Lochard, Emmanuel Jourdan, Mikhaïl Mait, Philippe Manoury, Stefano Gervasoni, Marco Stroppa, Hanspeter Kyburz 등).

Ensemble Aleph 주최 제5회 '젊은 작곡가 국제포럼'의 상주작곡가, project21AND 제2회 연주회 위촉작곡가였으며, Ensemble Aleph, Ensemble Alter Duft, Choeur de Britten, Ensemble21AND 등 현대음악 연주단체와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원대, 상명대, 추계예술대, 한양대, 서울대에 출강중이다.

### 김승연 Seungyon Ki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으며(사사: 전상직)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2007년 제2회 전국 창작 피아노독주곡 작품공모에서 1위로 입상하였으며 2008년 방콕에서 열린 국제 TIMF 아카데미에서 전액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2009년 STUDIO2021 Young Composer's Night: Piano Concert, 2011년 STUDIO2021 Young Composer's Night: Orchestra Concert에 참여하였고 2012년 화음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Ceremonial Dancer〉를 화음 프로젝트 op.115-1로서 발표한바 있다.

### 김수혜 Sue-Hye Kim

서울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작곡과와 오케스트레이션과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졸업(PRIX)하였다. 그 후 도미하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Davis)에서 작곡과 이론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대구현대음악콩쿠르, 창악회 콩쿠르, 팬뮤직 페스티벌, ACL 페스티벌, International Composition Festival in Paris, Pacific Rhim Festival, 대한민국 실내악작곡제전 등의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 입상 및 국내외 음악제에 참가·초청연주 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태국, 한국 등지에서 버클리 심포니오케스트라(2007-08시즌 상임 초청작곡가), ChamberBridge Frontiers, 앙상블 Empyrean, 리옹 국립오케스트라, 앙상블 T Polyphony, 앙상블 Eclat, 앙상블 SurPlus, 앙상블 Veritas, 한국 플루트학회, 가야금 연주자 김희정 등에 의해 다수의 작품이 위촉·연주되었다.

UC Davis와 서울대에 출강하였고, 현재 아시아작곡가연맹, 창악회, 소리목, ISCM, 여성작곡가회, 하나님의 작곡가들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건국대, 숙명여대, 명지대, 중앙대, 추계예대, 성신여대, 세종대에 출강 중이다.

### 이승은 Seung-Eun Lee

영남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수석졸업한 후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영남작곡가협회, 대구현대창작가곡 콩쿠르에 입상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와 울산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영남작곡가협회, 대구작곡가협회, 한국여성작곡가협회, 대구음악협회회원,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총무부 행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심은영 Eunyong Shim

한양대학교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작곡 및 음악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서울대, 인제대, 창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 임성완 Kenneth Lim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재학 중이며(사사: 정태봉), 2013년 평촌 국제작곡콩쿠르에 입상하였고, 2014년 태국 국제음악제(TICF)에 당선되었다.

## Players

### Ensemble Aventure



Ensemble Aventure (양상블 아방튀르)

#### 마르티나 로트 Martina Roth | Flute

켈른 출생으로 프라이부르크-켈른-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에서 공부했으며, 1986-1991년 프라이부르크 시립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제임스 에버리, 피터 베알레, 스펀 토마스 키블러 등과 함께 양상블 SurPlus를 창단했으며, 1993년부터 양상블 아방튀르의 플루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1989년 이후 브라이스가우 청소년음악학교에서 가르쳐 왔으며, 수많은 국제페스티벌, 라디오와 TV녹음, CD발매를 통해 독주와 실내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알렉산더 오토 Alexander Ott | Oboe

알렉산더 오토는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독주 오보이스트로서 양상블 모데른의 창단멤버였으며, 그 밖의 다양한 양상블의 단원으로 활동해왔다. 수많은 방송녹음과 CD발매 경력을 가진 그는 2006년부터 양상블 아방튀르에서 활동 중이다.

#### 발터 이프림 Walter Ifrim | Clarinet

발터 이프림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클라리넷을 공부한 후 1980-82년 콘스탄차 심포니오케

스트라의 독주자로, 이어서 티미쇼아라 시립오페라단의 연주자로 활동했다. 1993년부터 독일 프라이부르크 근교에 거주하며 고전·낭만·현대음악의 독주 및 실내악 활동을 벌였고, 양상블 아방튀르의 창단멤버로서 수많은 CD를 녹음했다. Uros Rojko, N. A. Huber, Bernardo Kuczer, Carmen Maria Cămecei, Nadir Vassena 등 많은 작곡가들이 그에게 작품을 헌정했다.

#### 볼프강 뤼디거 Wolfgang Rüdiger | Bassoon

1957년 출생으로 예센음대에서 피아노와 비순을 전공했으며, 철학과 교육학도 공부했다. 프라이부르크음대 석사과정에서 계속 비순을 전공한 후, 이어서 에게브레히트에게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이후 양상블 아방튀르의 창단멤버로서 비순주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약했으며, 그밖에도 실내악 및 독주자로서 국제적인 연주활동을 펼쳤다. 수많은 현대작품들을 초연했으며, 방송녹음과 CD발매를 했고, 많은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와 브레멘 음대에서 강의하던 뤼디거는 2001년부터 뒤셀도르프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음악저널의 고정필자로서 다양한 글을 기고하고 책을 저술해오고 있다.

#### 프리데만 아마데우스 트라이버 Friedemann Amadeus Treiber | Violin

1971년 출생으로 5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여 프라이부르크와 바젤에서 공부했다. 이어서 10년간 볼프강 마르쉬너(Wolfgang Marschner, 프라이부르크 음대)와 한스하인츠 슈네베르거(Hansheinz Schneeberger, 바젤 음대)에게서 공부했다.

다수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바 있으며, 1981년 이후 독일과 유럽, 그 외 지역으로 연주여행을 다니며 독주, 실내악,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1985년 이후 독일, 스위스, 호주 등 다양한 방송국의 녹음활동과 함께 바흐 독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파가니니 카프리치오, 레거, 바르톡, 헨체의 소나타 등 여러 CD를 발매했다.

무반주 바이올린곡, 실내악, 바로크·고전·낭만·현대의 바이올린협주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피아노와 비올라 연주자일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활동하여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가곡 등의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 비벌리 엘리스 Beverley Ellis | Violoncello

스톡홀름 출생으로 호주에서 성장했으며 런던에서 첼로를 공부한 후 프라이부르크에서 1987년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1990-1994년 만하임 실내오케스트라의 독주자로 활동하면서 하이든, 보케리니, 슈타미츠 등 다양한 작품을 연주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에 거주하면서 독주 및 양상블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고음악(바로크첼로)으로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양식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현대음악양상블 "SurPlus"와 바젤 실내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수많은 방송 및 CD녹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키코 오카베 Akiko Okabe | Piano

일본 군마 출생으로 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도호 가쿠엔 음대를 졸업한 후 프라이부르크 음대에서 제임스 애버리에게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 Profile

일본 및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독주자 및 실내악주자로 활동해왔다. SWR 심포니오케스트라, 도이체 라디오 필하모니 등 많은 관현악단과 협연했고, 2006년부터 앙상블 아방튀르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CD녹음과 방송녹음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악기 또는 다양한 도구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녀는 종종 Amanda Miller, Hideto Heshiki, Rick Kam과 같은 무용가, 안무가 등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 니콜라스 리드 Nicholas Reed | Percussion

런던 로열음악원(Royal College of Music)에서 케빈 해스웨이(Kevin Hathway)와 마이클 스킨너(Michael Skinner)에게, 파리 음악원에서 미셸 체루티(Michel Cerutti)에게, 프라이부르크 음대에서 베른하르트 볼프(Bernhard Wulff), 파스칼 풍스(Pascal Pons)에게서 타악기를 공부했다. 로열음악원의 타고르(Tagore) 금메달, 사비언(Sabian) 타악기상, 호주 음악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영국의 유력일간지 텔레그라프는 그의 런던 데뷔연주회를 '2009년의 가장 촉망되는 데뷔연주'로 선정하기도 했다. 유럽, 일본, 동남아 등지의 다양한 음악제에서 독주와 실내악 활동을 펼쳐왔으며, 헬무트 라헨만, 피에르 볼레즈, 조르주 아페르기스, 올리버 너센, 니콜라우스 A. 후버, 콜린 데이비스경, 사이먼 래틀 경 등 수많은 음악가들과 작업했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의 주요대학에서 초빙강사로 활약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앙상블 아방튀르의 정규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 Sukhi Kang at 80

### 이경선 Kyungsun Lee | Violin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콩쿠르 1위 입상 이후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디안젤로 국제콩쿠르, 레오 폴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퀴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차례로 입상하였다. 몬트리올 심포니, 벨기에 국립교향악단, 모스크바 교향악단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했으며 링컨센터,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등 미국 전역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말보로, 아스펜, 시애틀, 라비니아 페스티벌과 프러시아코브 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하였으며, 세종솔리스트와 금호현악사중주단 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통령표창 수상,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일찍이 동아, 이화경향, 한국, 부산 콩쿠르 등을 석권했고 서울대 실기수석 졸업 후 도미하여 피바디 콘서트바토리에 아티스트 디플로마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줄리어드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마쳤다. 미국 오벌린 음대 조교수, 휴스턴 음대 부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전 실내악축제 음악감독 및 화음 체임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 요시코 하나 Yoshiko Hannya | Viola

1973년 히로시마 출생으로 일본 도호음악원과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히로시마 시의 젊은 음악가상, 이탈리아 시에나 키자나 음악아카데미의 Diploma di Merito를 수상했다. 비올리스트로서 앙상블 Ictus, 앙상블 Prometheus, 앙상블 La Monnaie 등과 유럽, 일본,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2004년 일본 문화청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2006-2012년 앙상블 Next Mushroom Promotion에서 활동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현대음악세미나 및 아카이오시아이여를 페스티벌의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성경주 Kyoung-Joo Sung | Violin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수석 입학 및 졸업 후 도미하여 오벌린 콘서트바토리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 줄리어드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찍이 음악저널 콩쿠르와 한국음악 콩쿠르의 대상, 바로크 음악콩쿠르 1위, KBS 신인음악콩쿠르 1위없는 2위, 해외파견 음협콩쿠르 2위, 성정 음악콩쿠르 우승, 난파음악제 우승 등을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성경주는 예원학교 오케스트라 일본 순회연주,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울산시립교향악단·서울대학교 스트링앙상블·부천 청소년오케스트라·서울 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인천시립교향악단·KBS방송교향악단·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금호 영아티스트 리사이틀, 오벌린 콘서트바토리에 교수 실내악연주회(이경선, Karen Ritscher와 현악 3중주 연주), 음원캠프 오프닝 콘서트에서 연주했으며 뉴 줄리아드 앙상블 단원으로 여러 현대작품을 연주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린 마운틴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에 참가하여 꾸준한 기량을 닦아왔으며 2013-2014년 시즌에는 샌트럴 텍사스 메디컬오케스트라 및 캐나다 토론토 시노피아와 협연하였고,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故이종숙, 강호, 송재광, 양성식, 이경선, Joel Smirnoff, Brian Lewis를 사사했으며, 현재 텍사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동시에 화음 챔버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승리 Sung Lee Choi | Piano

2009년 Sorel Medallion Collaborative 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여 링컨센터에서 뉴욕 데뷔 연주를 했던 그녀는 15살에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 이어 2년 후 전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전주예고 전체수석 입학 및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에서 신명원과 한방원을 사사하였다. 한국반주협회로부터 "New Rising Star"로 선정되며 리사이틀을 열었고, 2006년 영산아트홀에서 "New Year's Rising Star Concert Series"의 우승자로 선정되어 다음 해에 영산아트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졌다. 또한 Music Academy of the West, 대관령국제음악제, 파가니니 국제바이올린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음악제와 국제콩쿠르에서 반주자로 활동하였고, 로잔 음악아카데미의 마스터 클래스와 연주에 참여해 Bruno Canino와 Pierre Amoyal을 사사하였다. 줄리어드 대학원 재학시절 줄리어드음대와 예비학교의 스펀 피아니스트였으며, 2014년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콩쿠르의 공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반주강사를 역임한 그녀는 줄리어드 음악원 반주과에서 Margo Garrett과 Jonathan Feldman, J.J. Penna를 사사하며 석사학위를,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Anne Epperson의 지도아래 반주과 Teaching Assistant와 전액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Best Lecture Recital Award를 수상하였다.

### 이영우 Young-Woo Lee | Piano

피아니스트 이영우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에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예술 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베를린 예술 대학의 Diplom과 Konzertexamen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조선일보 콩쿠르에서 입상,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에서 Diploma D'Honor를 수상했고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 파울 힌데미트 재단 장학생으로 발탁되는 한편, 베를린 주 정부가 수여하는 젊은 예술가 후원 장학 기금의 수혜자로 선발되었다.

유럽과 한국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연주와 가곡 반주, 현대음악 초연 등의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영우는 서울대학교 String Orchestra, 'Sinfonietta 92 Berlin'과 연주, Berliner Symphoniker와 협연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의 데뷔 무대였던 das sinfonie orchester berlin과의 연주가 큰 호평을 받아 이후에도 수차례 협연했다. 통영국제음악제 페막공연에 초청되어 윤이상의 작품들을 연주했고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 TIMF양상블의 다양한 기획 연주, 서울대학교의 현대음악 프로젝트 (STUDIO 2021), 홍콩아트페스티벌과 싱가포르 국립 콘서바토리 초청 연주 등을 통해 수많은 작품들의 한국/세계 초연 연주 무대에 섰다. 또한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에 출연, 연주했고 KBS 1FM을 통해 독주회가 실황 중계되었다.

소누스 트리오와 TIMF양상블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희대, 가천대와 예원학교, 서울예고, 계원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신이은 Ei-eun Shin | Piano

13살에 대전시립교향악단(정두영 지휘)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피아니스트 신이은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수시입학,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에서 Diplom을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Solistenexamen) 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며 탄탄하게 실력을 키워나갔다.

서울대 1학년 재학시 국내 최고권위의 동아음악콩쿨에 입상하였고, 그 밖에 이화경향콩쿨입상을 비롯 한국음악콩쿨 금상, 음연콩쿨 1위등 국내 우수 콩쿨에서 입상,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젊은이의 음악제에도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던 그녀는,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콩쿨 입상과 독일 칼스루에 Freundeskreis 콩쿨 첼로와 듀오부문에서 1위입상하고 현지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성공적으로 협연하였다.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오페라학교(IMT) 반주자로 활동했으며, 실내악에도 큰 관심을 보여 독일 여러 지역과 프랑스에서 실내악 연주를 해온 피아니스트 신이은은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으로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Lilya Zilberstein을 비롯, 저명한 교수인 Hans Leygraf, Klaus Hellwig, Andrej Jasinsky, Kaya Han, Fabio Bidini, Arnulf von Arnim, Bernd Glemser, Boris Petrushansky 의 마스

터클래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연주단체 Ensemble Modern의 Ueli Wiget, 세계적 바리톤 Roman Trekel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참여해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국내에서 최희연, Edward Auer, 강충모, 이혜진, 김미경, 윤영미 교수는 국외에서는 Vladimir Krainew, 한가야 교수를 사사하였고 귀국후 금호아트홀에서의 귀국독주회(H. Holliger Partita 한국 초연을 비롯해서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한 제 1회 썸어 뉴아티스트 오디션에 합격해 독주회를 했다. 경희대 작곡과 강사연주회, 창악회 연주회(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김수호 〈접선의 연장〉개작초연)출연 및 지난 5월 일본도쿄에서 도쿄 프라임필과 협연, 8월 대전시향 영비르투오조 데 뷔콘서트 출연(지휘 금노상)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배재대, 서울예고, 인천예고, 대전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 충북예고, 충북예고 부설 영재교육원에 출강하여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강수진 Soo Jin Kang | Percussion

퍼커셔니스트 강수진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며 한국음악협회콩쿠르 1위, CBS콩쿠르 1위, 연세대학교 관악콩쿠르 2위, 서울대관악콩쿠르에서 2위에 올랐다. 모스트리필하모니오케스트라, 구리시립교향악단,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을 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연주와 독주회를 하며 타악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정희정 Hyejeong Jeong | Percussion

정희정은 우현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로 입상하였고, 한국음악협회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 임예지 Yeji Lim | Percussion

임예지는 대한민국 관악콩쿨 1위를 시작으로 가천음악콩쿨 타악부문 1위, 음악협회 타악부문에서 3위로 입상하였고 W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1학년 재학중이다.

### 양지은 Ji Eun Yang | Percussion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양지은은 우현콩쿨과 서울대 콩쿨에서 입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 백승현 Seung-hyun Baek | Conductor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기악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임헌정 교수를 사사, 작곡과 지휘 전공으로 재학 중이다. 제2회 경기필하모닉 지휘자 꿈나누기 프로그램 우수자 선정 및 연주, 경희대학교 2013 정기오페라 '가면무도회' 부지휘, TIMF Ensemble 객원지휘, 서울대학교 Symphony Orchestra 지휘 등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 정한결 Hankyul Chung | Conductor

정한결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전공에 진학하였다. 재학 중 SNU Symphony Orchestra, 국립경향교향악단, TIMF Ensemble 등을 지휘하였고 2014년 경기 필하모닉 〈지휘자 꿈나누기〉 프로젝트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전공 3학년에 재학중이며 임현정 교수와 구모영을 사사하였다.

### SNU Virtuosi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으로 이끄는 SNU Virtuosi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강사, 졸업생, 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8월 대전 실내악 축제에서 SNU 챔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창단 되었다. 단원들의 다양한 세대의 조화로움을 통해 클래식 음악 뿐만이 아니라 탱고를 비롯해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또한 이중주에서부터 현악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편성의 음악을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2014년에 이미 많은 곳에서 초청되어 1월에 판교 SK케미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3월 예술의전당 IBK홀(롯데다클래식),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봄 문화행사), 5월 대전 대덕교회 초청연주, 6월 더 하우스 콘서트(400회 특별연주), 8월 대전 실내악 축제(오프닝 연주), 9월 중국 시안 국립 음대 콘서트를 개관 기념 연주를 가졌고 더 나아가 국내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음악제와 콘서트 홀에서 초청되어 연주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최고의 현악 앙상블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연주할 계획이며 참신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중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하며 감동을 나누고 소통하고 선사할 수 있는 앙상블이 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Leader 이경선 Vn, 주연경 노윤정 윤지영 김혜진 김여경 박강현 최여은 Va, 이한나 김지원 Vc, 김연진 조재형 허예은 Db, 김남균

## Editors

### 서정은 | Composition/Musicolog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공부한 후, 영국 서섹스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고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논문으로 “음악에서의 반복의 의미와 20세기 이후 무조음악에서의 구조적 유기성 창출을 위한 반복의 기능”,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대위적 텍스처의 양상들”, “헬무트 라헨만의 ‘기악적 구체음악’ 과 그 음악사적·미학적 해석”, “불확정성의 요소를 띤 20세기 음악에서의 연주자의 해석적 관여”, “숨겨진 인용을 통한 두 세계의 병존과 대위: 헬무트 라헨만, 〈Accanto〉의 경우”, “진은숙의 음악언어, 추상화(抽象化)를 통한 재맥락화(再脈絡化)”가 있으며, 역서 『화성학』 (Diether de la Motte 저), 저서 『전환기의 작곡가: 새로운 예술을 향하여』가 있다.

### 신상호 | Musicolog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음악과 이론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협동과정 음악학 서양음악학 전공(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독일 제3제국 시기 음악학 연구에 나타나는 독일중심적 사고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에서 석사논문(“독일음악학의 독일정체성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제3제국 시기 독일 음악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을 작성하였고 현재는 20세기의 비극적 사건인 유대인 대학살을 두고 논의된 역사와 기억 분야의 답문을 20세기 현대음악의 사례로 확장하여 ‘홀로코스트의 음악적 재현’ (musical representation of the Holocaust)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 이혜진 | Musicology

성신여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신여대에 출강중이며, 서울대학교 현대음악시리즈 스튜디오2021의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19세기 후반기 ‘표제적 연주회용 서곡’ 의 장르적 의미에 관한 고찰”,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의 장르적 경계의 모호성” 이 있으며, 공역서로 “음악, 말보다 더 유창한: 현대 독일 영미 음악미학의 논의들,”(“사유로서의 청취: 수사학에서 철학으로”)가 있다.

# 2014 Spring Season Review

##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신상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협동과 음악학[서양음악학 전공] 수료)

올해 2014년의 <STUDIO2021> 행사는 무엇보다 서울국제음악제와의 공동 주최로 성사된 구바이둘리나의 내한과 그의 여러 주요 작품의 한국 초연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음악이 우리 시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시대 음악(contemporary music)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해도 실제로는 음악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연주회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문 편임을 고려한다면, 구바이둘리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진행된 5월 23일과 26일 양 일의 행사들은 현대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맞게 된 드물고도 소중한 기회였음에 틀림이 없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한 구바이둘리나가 자신의 작품이 한국의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되는 것을 연주회장의 객석에서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직접 무대 위에 올라 질의에 응답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일말의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말하자면 하나의 영역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일 것인데, 실제로 구바이둘리나는 5월 23일 오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여러 행사들을 그의 음악 세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청중들과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다.

5월 23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의 일정은 1) 구바이둘리나의 음악 세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준비된 구바이둘리나의 특정 작품(<요한 수난곡>)을 설명하는 음악학자 서정은의 특강과 2) 구바이둘리나와의 대담 및 질의응답 시간, 3) 그리고 그의 피아노 작품과 실내악을 중심으로 열린 음악회로 구성되었다. 며칠 후인 5월 26일 월요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홀(오후 5시)과 콘서트홀(오후 8시)에서 열린 음악회들과 비교하면 23일의 행사는 그 자체로는 무척 조촐하게 여겨질 만도 했다. 특히 음악회 자체의 무대 규모나 출연진 숫자 및 중요 연주자들의 화려한 이력들, 그리고 연주된

작품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구바이둘리나를 주제로 하는 2014년 상반기 <STUDIO2021> 행사 전반의 무게 중심은 예술의전당에서 있었던 두 차례 음악회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현대음악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관련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행사 기획과 진행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5월 23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행사 프로그램이야말로 STUDIO2021의 취지와 기획 의도에 더 부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우선 이후 행사 진행 관계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음악학자 서정은의 특강은 구바이둘리나의 <요한 수난곡>의 작품 배경과 창작 과정, 그리고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구(舊) 소련 타타르 공화국 출신 작곡가인 구바이둘리나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었다.

뒤이어 진행된 작곡가와의 대담은 (적절하게 조율되지 못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작곡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평생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창조해낸 한 노 작곡가의 음악을 향한 생각의 편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강이 끝난 뒤 대담과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객석에서 부축을 받으며 대담 테이블이 마련된 무대로 향하는 힘겨운 발걸음은 1931년 생으로 이제 여든을 훌쩍 넘긴 노 작곡가의 나이를 떠올리게 했지만, 그의 육성은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터득하고 연마했을 음악가로서의 확고한 의식을 담고 있었다. 그의 삶을 통틀어 볼 때 오랫동안 지속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것을 현실의 작품 활동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이끌어낸 끈기의 느낌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본다.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음악회는 5월 26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두 차례의 음악회에서 연주된 작품들에 비하면 소규모의 독주곡과 실내악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음악회는 앞서 진행된 특강과 대담 및 질의응답 순서가 끝난 뒤에 시작되었기에 청중들의 주위가 일부 흐트러져 있었을 상황이었고 연주된 구바이둘리나의 작품들 역시 독주곡과 소편성의 실내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는 그 자체로 열정적이고 탁월한 호연이었고 이날의 마지막 행사를 충실히 마무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특별 콘서트, 현대음악 공연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 혜 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학[서양음악학 전공] 졸업)

오늘날 클래식 음악 공연 무대를 장식하는 대다수의 작품들은 18-19세기에 창작된 서양음악이다. ‘과거’를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을 ‘박물관’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작곡된 음악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연주회장을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9세기 이전의 청중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연주무대는 당대에 창작된 음악작품의 초연 무대였다. 그러나 19세기 즈음 촉발된 ‘옛 것’에 대한 관심은 연주 무대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소위 ‘고전 레퍼토리’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레퍼토리 공연 비율이 신작 발표회 비율을 초월하는 현상을 빚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21세기 대한민국 음악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클래식 음악’ 소비자를 생각하면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대중이 떠오른다. 음악관련 종사자나 음악 전공자들, 그 중에서도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사람들 말이다. 일반 대중이 티켓을 사서 찾는 음악회 대부분이 동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 아닌 유명 연주자나 연주 단체에 의한 ‘고전 레퍼토리’ 공연인 것은 이미 19세기에서부터 존재했던 현상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두 세기 이상이나 지나 버린 이 시점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최고점에 달한 듯 하다. 19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조성에서 무조성으로의 음악 언어의 근본적 변화, 기존 장르 및 형식의 해체, 소음

까지도 소리 재료로 사용하는 음 재료의 확대, 연주 주법의 변화 등등’ 소위 20세기 벽두부터 감지된 ‘음악적 모더니즘’을 거친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중은 여전히 ‘고전 레퍼토리’ 공연을 찾는다. 그들에게 현대음악어법은 여전히 낯설고, 현대음악 콘서트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특별 콘서트”에서 펼쳐진 장면은 매우 흥미로웠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공연장 근처는 이 연주회를 찾은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으며, 이들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날 공연이 현대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만으로 구성된 음악회란 점에서 이 광경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연주, 페터 히르쉬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날 음악회에서 는 구소련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현대음악 작곡가인 구바이둘리나의 세 개의 작품 〈바리톤과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칸타타 “루바이야트”〉(1969), 〈피아노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인트로이투스”〉(1978), 그리고 〈두 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두 개의 길”〉(2014)이 연주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루바이야트”와 “인트로이투스” 두 곡이 연주되었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노래하는 “루바이야트”에서는 바리톤 정록기가 ‘말하기, 속삭이기, 비명 지르기, 마이크를 통해 노래하기’ 등 전통적인 발성 외에 새롭게 요구된 성악 기법을 숙련된 솜씨로 잘 표현해냈다. 특히 연주와 동시에 스크린 상에는 칸타타 텍스트가 우리말로 제공되어 청중이 페르시아어 시로 된 이 작품의 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 연주가 끝난 후 무대는 피아노 협주곡 연주를 위한 세팅으로 바뀌었다.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입장하고 연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피아노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인트로이투스”〉연주가 시작되었다. 사실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청중이 만나는 무대는 일반적인 피아노 협주곡 무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연주가 시작되자 음악은 청중을 전통적인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다. 이는 단순히 미분음, 반음계, 온음계, 5음음계 등 서로 다른 네 개의 음고류가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연주되는 구바이둘리나 특유의 음악어법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교적 측면이 완전히 배제된 채 명상적인 성격에 가까운 이날 연주는 때로는 고요한 분위기로, 또 때로는 기묘한 분위기로 청중을 안내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과장되지 않고 절제된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연주였다. 현

란한 기교의 표출이 아닌,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여 다시 그 소리 안의 심오한 소리를 끌어내고자 한 최희연의 고도로 집중한 연주 덕분에 청중은 작곡가가 의도한 영적인 소리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단연 (두 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두 개의 길”)이었다. 1999년 초연 당시만 해도 이 곡의 독주 파트를 담당한 것은 첼로가 아닌 비올라였다. 그러나 이번에 연주된 작품에서는 요하네스 X. 사흐트너에 의해 비올라 파트가 두 대의 첼로 파트로 편곡되었으며, 따라서 이 날 음악회는 구바이둘리나 “두 개의 길”의 첼로 편곡 버전이 세계적으로 초연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곡의 초반에 제시된 4음 동기(E-F-A-E)의 곡 전체에 걸친 변형 및 반복, 3연음·5연음·7연음 등의 다양한 리듬패턴의 사용, 오케스트라와 두 대의 첼로 외에 여러 종류의 타악기, 첼레스타, 피아노 등에 의한 이례적인 악기편성, 비전통적인 연주기법 등을 통해 구바이둘리나 특유의 음악어법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작품은 마리아와 마르다리는 성경 속의 두 여성의 이미지에 착안하여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두 가지 사랑의 유형을 음악적으로 구현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첼리스트 율리우스 베르거와 성형정은 일곱 개의 변주가 전개되는 동안 서로 대조를 이루는 사랑의 유형을 ‘고음역 대 저음역, 하모닉스 대 일반음, f 대 p’ 등 두 독주 파트 간의 음악적 대비를 통해 최대한도로 표현해 냈다.

모든 연주가 끝난 직후 이루어진 작곡가 구바이둘리나의 무대 인사는 연주만큼이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연주뿐만 아니라 작품을 만든 당사자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고전 레퍼토리’ 연주회에서는 불가능한 현대음악 콘서트만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무대 위에 오른 작곡가의 모습은 직전에 감상한 세 곡의 대작들에 비해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했다. 그 작고 왜소한 체력에서 뿜어 나오는 강력한 음악적 에너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청중은 몇 차례의 커튼 콜로 작곡가에게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앞선 오후 5시에는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 음악가들”이란 제목으로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구바이둘리나의 〈비올라와 바순, 피아노를 위한 “호케투스 풍으로”〉(1984) 외에도 이신우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라멘트-오, 시온의 딸아”〉(2014), 최우정의 〈카운터테너와 두 테너, 베이스를 위한 “시편”〉(2000), 갈리나 우스트볼스카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듀엣” 1악장〉(1959), 알프레드 슈니트케의 〈아카펠라 합창단을 위한 “참회의 시편” 중 2번, 4번, 10번〉(1988) 등 구바이둘리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국내외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그리스도교, 러시아 정

교회,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문화에 기대고 있는 이 작품들은 구바이둘리나 음악의 종교적이고 신비적 속성파도 맞닿아 있다. 이 중 서울모테트합창단이 노래한 최우정의 “시편” 연주는 스페인어로 된 시편 가사에 의한 다성음악 텍스처 안에 불교음악 범패의 ‘깃소리’ 효과가 이질적으로 삽입되어 매우 독특하고 신비로운 효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 날 연주에서는 구약성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바탕으로 한 이신우의 “라멘트-오, 시온의 딸아”가 윤혜리의 플루트, 이영우의 피아노로 연주되었다. 코랄 풍의 선율이 피아노 오른손 성부에 반복적으로 제시된 후 점차 왼손과 플루트가 가세하고, 불협화음이 중첩되면서 음악회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후 음악은 악상의 증가 및 빠른 패시지의 등장, 특정 리듬패턴의 반복, 복화음 위에 중첩된 피아노의 강렬한 연타음 연주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분위기를 연출해냈으며, 이는 청중에게 표제 ‘예레미야 애가’와 관련된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구바이둘리나”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유명 현대음악 작곡가의 내한 공연’이란 점 외에도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귀에 익숙한 옛 언어로 회귀하지 않은 채 이 시대의 새로운 음악 어법을 여전히 탐구하는 작품도 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주에 참석한 수많은 인파들 중 일반 대중이 얼마나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이 현대음악 관련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레퍼토리와는 무관하게 독주자나 바로크 합주단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회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과 연주에 몰입된 청중들의 집중된 모습, 인터미션 시간에 프로그램 노트를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 연주가 끝난 후 작곡가에게 열광하는 모습 등, 이날 음악회에서 목격된 여러 풍경들은 특정 청중들만의 행사에 머물렀던 기존의 현대 클래식 공연계에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이번 콘서트는 훌륭한 음악회란 좋은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온전히 소화해 낸 멋진 연주만으로도 불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준 공연이기도 했다. 마지막 엔딩 곡이자 이번 공연의 절정이기도 했던 구바이둘리나의 “두 가지 길”은 제2첼로가 오스티나토로 최저음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1첼로가 최고음역에 이르면서 조용히 끝난다. 모두가 마지막 엔딩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울린 청중석의 핸드폰 소리는 준비되지 않은 청중이 음악회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역으로 청중의 준비된 태도가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 STUDIO2021 EDITION & CDs

## STUDIO2021 EDITION

produced by STUDIO2021 | published by 음악춘추사

### 전상직 | Sangjick Jun

- SE1001  
Beyond Description for Strings
- SE1002  
Magnificat for Mixed Choir & Strings
- SE1003  
Ensemble Multicolore-II for Woodwind Quintet
- SE1004  
Linie-IV for PIRI & Strings
- SE1101  
3 Pieces for Violin solo
- SE1102  
Linie-II for Clarinet and Piano
- SE1103  
Composition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
- SE1104  
5 Bagatelles for Brass Quintet
- SE1105  
4 Lieder for Soprano and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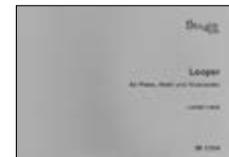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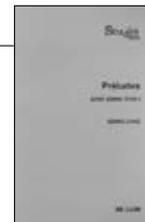
### 정태봉 | Tai-Bong Chung

- SE1106  
교향시 "한국(韓國)"  
Symphonic Poem "Korea"
- SE1107  
교향시 "고구려(高句麗)"  
Symphonic Poem "Kogur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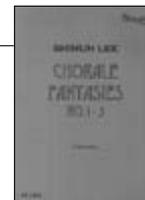
### 최우정 | Uzong Choe

- SE1108  
Préludes pour piano, livre I
- SE1109  
Air for Piano and String Quartet
- SE1110  
Sonatine for Violoncello and Piano
- SE1203  
anak for Komungo and Percussion
- SE1204  
looper for Piano, Violin and Violoncello
- SE1205  
Im Himmel gegraben for String Quartet
- SE1301  
Three Songs



### 이신우 | Shinuh Lee

- SE1302  
Chorale Fantasies for Piano No. 1-3 (2007-2013)
- SE1303  
Lament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2011)
- SE1304  
Psalm Sonata for Violin and Piano (2011-2013)
- SE1305  
Expression for Violoncello (1992)



**김규동 | Gyoo-Dong Kim**

SE1401  
관현악을 위한 무채색 원형  
A. chromatic Circle for Orchestra



**STUDIO2021 CDs**

produced by STUDIO2021 | mastered by SoundSketch

**김정길 | Chung-gil Kim**

원형상(源形象, urfiguration)



- 4인의 타악기를 위한 원형상 [2002]
- 가야금과 두 그룹의 타악기를 위한 원형상 [1999]
- 현악합주를 위한 원형상 - 변이 [2003]
- 독주 호른과 8인의 호른합주를 위한 원형상 [2000]
- 플룻과 가야금을 위한 원형상 [2004]
- 현악합주를 위한 원형상 - 고향 [2004]

**장정익 | Cheng-iek Chang**  
**Cheng-iek Chang at 60 "虛堂"**



- 독주 / Solo for Clarinet [1973]
- 갑사(甲寺) / Gap-sa for Clarinet and Piano [1982]
- 그림자 나무 / The Shadow Tree [1998]
- 명(鳴) II / Myung II for Flute, Clarinet, Bassoon and Piano [1988]
- "사랑하는 이의 잠"에 부쳐 / On "My Lover's Slumber" [1995]
- 풀잎의 영혼 / The Spirit of Leaves [2000]
- 허당(虛堂) / Huh-Dang for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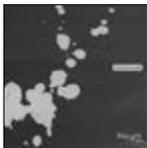
**STUDIO2021 Sacred Music Project**

**"Psalmen"**



- Charles Ives** (1874-1954)  
〈The Sixty-Seventh Psalm〉 for Full Chorus of Mixed Voices, a cappella [1984]
- Beat Furrer** (1954-)  
〈Psalm〉 for Choir a cappella [1997]
- Johannes Brahms** (1833-1897)  
〈Psalm 13 op.27 "Herr, wie lange willst du mein so gar vergessen"〉  
for Female Voices and String Orchestra [1864]
- Morton Feldman** (1926-1987)  
〈Rothko Chapel〉 for Soprano, Alto, Mixed Choir and Instruments [1971]
- Sangjick Jun** (1963-)  
〈Magnificat〉 for Mixed Choir and Strings [2007]
- Juneyoung Joo** (1983-)  
〈Pater Noster〉 for Choir, Two Horns and String Orchestra [2007]
- Igor Stravinsky** (1882-1971)  
〈Mass〉 for a Mixed Chorus and a Double Wind Quintet [1948]

이신우 | Shinuh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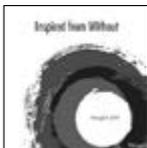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손 / Invisible Hands for Violin and Orchestra (2000/2008)

열린 문 / An Open Door for Strings (2004)

주를 찬미하라 / Violin Fantasy No.2 Laudate Dominum (2006)

전상직 | Sangjick Jun

"Inspired from Without"



Beyond Description for Strings (2008, Hwaum project Op. 66)

Ensemble Multicolore II for Woodwind Quintet (2008)

3 Pieces for Violin solo (2002/2007)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

(2003/2005, Hwaum project Op.16)

Magnificat for Mixed Choir & Strings (2007)



"Lines & Songs"

Linie-IV for PIRI & Strings (2010)

Concerto grosso for Strings (2008)

Linie-II for Clarinet & Piano (2002)

5 Bagatelles for Brass Quintet (2007)

Linie-I for Oboe & Vibraphone (1994)

정태봉 | Chung, Tai-Bong

"4 Symphonic Poems"



교향시 "백두대간(白頭大幹)" / Symphonic Poem "Baekdu Mountains"

교향시 "남강(南江)" / Symphonic Poem "The Nam River"

교향시 "한국(韓國)" / Symphonic Poem "Korea"

교향시 "고구려(高句麗)" / Symphonic Poem "Koguryeo"

최우정 | Uzung Choe



"Préludes pour piano, livre I"

No.1- No.12

악보 및 음반 문의  
Order & Contact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410호

음악대학 작곡과 사무실

Department of Composition,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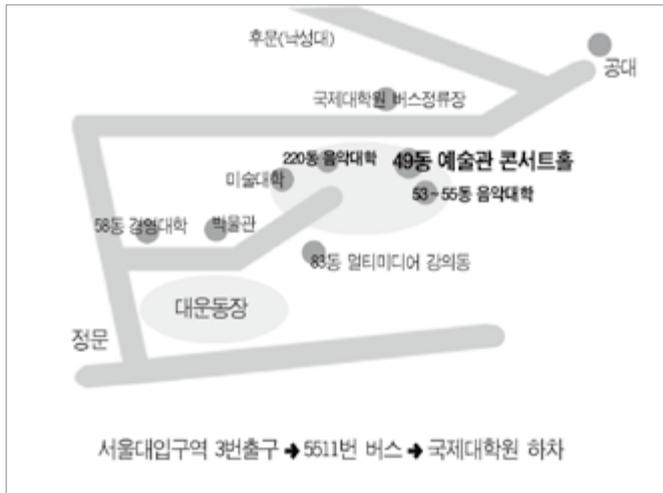
Seoul, Korea

151-742

Tel : 02) 880-7944

Email : studio2021@snu.ac.kr

## 예술관 약도



# Organizing Committee

## Music Director

이신우 Shinuh Lee

## Co-Programmer

최희연 Hie-Yon Choi

## Executive Committee

정태봉 Tai-Bong Chung

이돈응 Donoung Lee

전상직 Sangjick Jun

최우정 Uzong Choe

김규동 Gyoo-Dong Kim

Roland Breitenfeld

## Chief Editor

서정은 Jeong Eun Seo

## Editor

신상호 Sangho Shin

이혜진 Hyejin Yi

## Secretary

김새암 Sae-Ahm Kim

김미혜 Mihye Kim

이용석 Yongsok Lee



**SNU New Music Series | STUDIO202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410호 음악대학 작곡과 사무실  
Tel.02) 880-7944 Fax.02) 878-7064 <http://www.studio2021.co.kr>